재외동포의 창

2013 10월호

특집 1 : 4~9

"세계 한인은 대한민국의 자산"

제7회 세계한인의 날… 동포 유공자 97명에 훈포상

특집 2 : 10~13

"세계 한인 차세대는 창조의 주역"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한민족 희망공동체의 비전' 논의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찬란한 독보적 세공 기술 신라 금관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신라에서 발견되는 금관은 정교한 세공 기술, 독특한 외관, 그리고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예술품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한국의 문화유산 가운데에는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 신라 금관은 대표적인 것이다. 학자들은 인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대의 금관 가운데 반 이상이 신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다.

사진에서 보이는 금관의 독특한 양식은 시베리아 샤먼들의 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과 신라의 시조인 김알지가 내려온 나뭇가지를 형상화 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금관의 사용 역시 무덤의 부장품이라는 주장과 왕이 실제로 머리에 썼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신라 금관이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왕관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금관을 버리고 7세기 이후에 한국 왕들은 중국식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이 면류관보다 우리의 금관이 미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월등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목차 2013 10월호

2 **한국의 얼** 찬란한 독보적 세공 기술 신라 금관

3 **목차**

4 **특집 1** "세계 한인은 대한민국의 자산"
제7회 세계한인의 날… 동포 유공자 97명에 훈포상

10 **특집 2** "세계 한인 차세대는 창조의 주역'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한민족 희망공동체의 비전' 논의

14 **기획** 광주 세계한상대회 10월 29일 팡파르
세계 40여 개국서 3천명 참가… '한상 네트워크' 결집

특별기고
"융합과 복합이 창조경제의 시작, 한민족 네트워크로 꽃피웁시다"
–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16 **화제** 조선족 대화합 한마당 춤과 노래로 가을을 수놓다
제3회 재한조선족연합회 가을맞이 문화공연 '성황'

18 **지구촌 통신원** '라틴 한류'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
12개국 182개 팀 500여 명 참가… 참가자 매년 늘어

20 **OKF 뉴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20여 개 대학서 2학기 특강

22 **한민족공감** 朴대통령, APEC 정상회의 큰 성과
아세안서도 '세일즈외교' 돋보여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24 **나의 살던 고향** 서라벌의 미소가 어린 경주

26 **재단공지**

표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2007년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올해로 7회를 맞았다. 내국인에게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임을 알려온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올해에는 '2013 코리안페스티벌, 재외동포사진전 및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외동포의 창

발 행 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 행 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 작 : 연합뉴스
인 쇄 :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자 명단에 오른 97명(단체 포함) 가운데 대표로 10여 명이 나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훈 · 포장을 받았다. 오른쪽부터 정진 재일민단 상임고문(무궁화장),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모란장), 김광오 캐나다 몬트리올 노년회 회장(동백장), 성영태 일본 야마가타 일한친선협회 고문(목련장), 임도재 아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목련장), 김수명 미국 (주)새한 대표(목련장), 상 보리스 아나톨리예비치 키르기즈고려인협회 전 회장(석류장), 신현섭 쿠웨이트 한인회장(국민포장), 문명곤 홍콩대한체육회 회장(대통령표창), 백경숙 러시아 연해주 아르센예브시 3번학교 교사(국무총리표창).

"세계 한인은 대한민국의 자산"

제7회 세계한인의 날… 동포 유공자 97명에 훈포상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2007년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올해로 7회를 맞았다. 내국인에게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임을 알려온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올해에는 '2013 코리안페스티벌, 재외동포사진전 및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다.

1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는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와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2 10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용인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3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세계한인의 날을 통해 서로의 정을 나누는 화합과 우정의 한인공동체가 결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 서로 돕고 나아갑시다"

제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하나 된 세계 한인, 희망의 새 시대로' 라는 주제로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등 각계각층에서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자 명단에 오른 97명(단체 포함)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올해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을 역임한 정진 씨를 비롯해 박수남, 박종범, 김우재, 김광오, 임도재, 이영백 씨 등 26명이 무궁화장과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을 받았으며, 김채옥, 민단 효고현지방본부 고문 등 12명이 국민포장을, 이준성 전 오레곤주한인회장 등 32명이 대통령표창을, 곽일출 히노데서방 대표 등 27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정환순 전 서재필기념재단 회장 등39명이 외교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97명의 동포 유공자들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다만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정진 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박종범 회장 등 10여 명이 나와 직접 훈 · 포장을 받았다.

재외동포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임도재 아프리카 · 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세계한인의 날은 세계 각국 한인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아프리카에서도 55개국 대부분에 한국인들이 한인회를 만들고 서로 돕고 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역경을 이기고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들과 하나로 연결돼야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720만 재외동포는 우리 국력의 외연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계 한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전 세계 한민족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세계한인의 날' 행사는 재외동포와 국민간의 화합과 단합의 제전으로 한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

고,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 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세계한인의 날을 통해 서로의 정을 나누는 화합과 우정의 한인공동체가 결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해외한인들도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갖고 한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립공연단 등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세계 한인의 날은 720만 재외동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7년 제정됐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양종훈 상명대 교수, 어린이 등 참석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재외동포사진공모전 개막식에서 "재외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등 응원메시지를 적어 재외동포분포 세계지도에 붙이고 있다.

첫 재외동포 사진전 대상에 김지민씨의 '광복절 행사'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제7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한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 수상작은 지난 8월 16일 미국 LA 광복절 행사에서 태극기 너머로 사물놀이패가 공연하는 모습을 담은 재미동포 김지민 씨의 사진작품 '광복절 행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LA 윌셔광장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에 장구와 꽹과리의 우렁찬 소리 또한 들리는 듯하다"며 "조국애를 느끼기에 충분한 사진이다"라고 수상사유를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김지민 씨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늘 고국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려고 했다"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우리 한인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금상에는 케냐인들에게 자동차기술을 전수하며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기술자 사장의 모습을 담은 재외동포 윤경섭 씨의 작품 '케냐 유일의 한인 자동차 기술자'가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재외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실감나게 담아낸 사진 11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 양종훈 상명대 교수는 총평에서 "한 장의 사진은 수백 장의 글보다 더 역동적인 역사적 변화를 주도해 왔다"며 "사진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우리 동포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과 전통을 지키려는 정신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7회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사진공모전 개막식에서 내외 귀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양종훈 상명대 교수,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7회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사진공모전 개막식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처음 실시한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은 재미동포 김지민 씨의 '광복절 행사'가 뽑혔다.

재외동포재단은 '제7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서는 코리아타운의 이모저모, 이국땅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포들의 생생한 활동 모습 등 29개국에서 총 484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양종훈 상명대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김녕만 월간사진예술 대표, 유병용 호남대 디자인예술대학 겸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대상 1명 100만 원, 금상 1명 50만 원, 입선 11명 각 30만 원)이 수여됐다.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금상에는 케냐인들에게 자동차기술을 전수하며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기술자 사장의 모습을 담은 재외동포 윤경섭 씨의 작품 '케냐 유일의 한인 자동차 기술자'가 선정됐다.

2013 코리안페스티벌을 앞두고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타국에서 온 재외동포 아티스트들을 환영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앞길에 130점 전시… 시민 북적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인의 날(10.5)을 기념해 9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보도에서 '재외동포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등 전 세계 각국의 코리아타운 및 재외동포 삶의 현장을 담은 사진 130여 점이 전시됐다.

30일 오후 2시 진행된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 등 내빈들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펼쳤다. 또, 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전 세계 재외동포의 분포도가 표시된 세계지도에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조규형 이사장은 "이번 전시작품들은 재외동포 삶의 일면을 그대로 담아낸 거울과 같다"며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페스티벌 "아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이곳이 아버지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그리웠던 기분이 든다…(중략) 아버지도 그 옛날 이 길을 걸어서 오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네"(박영일 · 청하의 길)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

10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코리안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재외동포 예술인들은 '아리랑으로 다시 만난 한민족'이란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코리안페스티벌 공연을 마친 뒤 열린 리셉션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공연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외동포 예술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관 극장 '용'에서 열린 코리안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재외동포 예술인들은 "아리랑은 한민족의 자부심이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리랑으로 다시 만난 한민족'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코리안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3대 아리랑인 진도, 밀양, 정선 아리랑을 비롯해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미국 등지에서 재외동포들이 불러온 특색 있는 아리랑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 출연진 가운데는 '일본의 조용필'로 불리는 일본의 박영일(63) 씨, 카자흐스탄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 겐나지(67) 씨 가족, 재중동포 김은희(36) 씨도 돋보였다.

박영일 씨는 "조국의 아리랑은 나의 영혼이자 블루스"라며 "내 몸 안의 DNA와 같다"고 표현했다.

박 씨가 부른 '청하 아리랑(청하의 길)'은 그가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청하군(현재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을 방문한 뒤 작곡한 노래. 48절에 이르는 대서사시에 곡을 붙여 모국에 대한 감정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겐나지 씨의 딸로 스웨덴에서 재즈가수로 활동하는 김 엘레나(36) 씨는 무대에 올라 '고향의 노래'라는 현대아리랑을 선보였다. 김 씨는 "아리랑을 부를 때면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이 피어오른다"며 "전 세계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민족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아리랑을 불렀다"고 밝혔다.

중국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족의 대표곡 '연변아리랑'과 고려가요에 곡을 붙인 '가시리'를 부른 재중동포 김은희 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연변예술대학과 북한 평양음대를 거쳐 한국 중앙대 음대에서 수학했다.

김 씨는 "세계 도처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아리랑 공연을 보니 서로 다른 특색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민족의 혼을 담은 것이 느껴져 감회가 새롭다"고 털어놓았다.

또 중국 용정시 조선족가무단은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 군가로도 불리던 '영천아리랑'을 공연했다.

러시아에서 성악가로 활동 중인 이연성 씨(44)와 독일의 팝페라 가수인 김정(36) 씨는 평양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 출신의 탈북 음악가 김철웅 씨가 작곡한 '독도아리랑'을 함께 공연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해금연주자 신현석(31) 씨는 북미지역 교회에서 불리는 '찬송가 아리랑'을 선보였다. 찬송가 아리랑은 아리랑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것으로 미국연합장로교회 찬송가로 공식 수록된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작곡가 강상구 교수를 비롯해 국악인 이지영(가야금), 윤호세(장구), 현대무용가 김삼진 씨가 함께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특별한 축하공연을 펼치고, 진도군립예술단, 밀양민속예술보존협회,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 한국의 3대 아리랑을 무대에 올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공연 시작에 앞서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대상을 받은 시 부문 박원규(과테말라), 단편소설 부문 이귀순(호주), 수필 부문 박성기(뉴질랜드) 씨에 대한 수상식이 무대에서 열려 관객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수상 후 공연을 지켜본 박원규 씨는 "아리랑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다 내용과 감성도 다른 줄 몰랐다"며 "이민의 삶을 사는 동포는 누구나 가슴 한자락에 한을 갖고 살기 마련인데 공연 내내 가슴이 울컥해지는 감동을 참기 어려웠다"며 감동을 전했다. 창

세계한인의 날 훈포상자 명단

▶ **무궁화장(2명):** 정진(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 김창수(미국 커네티컷한인회 상임이사)

▶ **모란장(3명):** 김용도(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지방본부 상임고문), 박수남(독일태권도협회 회장), 박종범(재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 및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 **동백장(6명):** 오용부(일본 큐슈코긴신용조합 이사장), 오용호(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지방본부 고문), 김시왕(미국 Kizan International INC 회장), 김보현(화가), 김우재(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 회장), 김광오(캐나다 몬트리올 노년회 회장)

▶ **목련장(7명):** 다까하시 아끼라(성영태; 일본 야마가타 일한친선협회 고문), 권오필(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미에지방본부 고문), 방기문(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김백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 고문), 김수명(미국 새한 Co. 대표), 김현중(재아랍에미리트한인회 자문위원), 임도재(가나 GLOTEC 건설 사장)

▶ **석류장(8명):** 황영규(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돗토리지방본부 고문), 권오원(재일본대한민국민단 히로시마지방본부 상임고문), 이덕선(미국 Allied Technology Group, Inc. 회장), 이영백(필리핀한인총연합회 이사장), 상 보리스 아나톨리예비치(전 키르기즈고려인협회 회장), 김만중(재콜롬비아한인회 회장), 백미애(캐나다 나래무용단 단장), 이상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포장(12명):** 김채옥(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효고현지방본부 상임고문), 이종해(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니가타지방본부 상임고문), 이석로(재일본대한민국민단 치바지방본부 고문), 박상근(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 김현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회장), 유한선(미국 뉴잉글랜드 한인회 고문), 나인출(호주 빅토리아주 한인회 회장), 로이윌슨(뉴질랜드 브라운스 베이 시니어 시티즌 클럽 회장), 전종순(모스크바 원광한국학교 교장), 심현섭(쿠웨이트한인회 회장), 윤대영(두바이 그린스포츠 대표), 박상철(가봉공화국 대통령실 경호실장)

▶ **대통령표창(32명):** 이두호(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오모리지방본부 상임고문), 유강식(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미에지방본부 고문), 조기남(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자문위원), 박길수(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 이치노미야지부 고문), 김정석(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지방본부 고문), 제갈성수(미에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정경자(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사이타마지방본부 상임고문),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단체), 신전식(신전식소아과의원 원장), 대한부인회(단체), 이준성(전 오레곤 한인회 회장), 서옥자(전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 회장), 이강원(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교 교수), 김권식(이브이에스사(EVS, Inc.) 대표이사), 유병주(코리아나 플라자 대표), 홍설희(유타한인회 제1부회장), 류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이징협의회 자문위원), 박재현(천진 LG전자 법인장), 칭다오 적십자한중의료단(단체), 문명곤(홍콩대한체육회 회장), 허영숙(몽골토요한글학교 교장), 홍종국(기아모터스&지엠시보레 대표), 김우정(헤브론 병원 원장), 박원명(베를린 한인회 고문), 오가이 세르게이(국립 러시아 해양대학교 총장), 조만기(우정식당 대표), 이봉철(스웨덴한인회 고문), 남경자(고려일보 한글판 주필), 홍금표(PANTRANS사 대표이사), 권홍래(한 · 브 교육협회 이사 및 장학이사장), 정진영(전 트리니다드 태권도협회 회장), 이양환(사우디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 자문위원)

▶ **국무총리표창(27명):** 곽일출(히노데 서방(日之出書房) 대표), 김대희(재일본대한민국민단 시즈오카지방본부 고문), 김기수(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미야기선남지부 고문), 강재경(재일본대한민국민단 시즈오카지방본부 상임고문), 김경진(재일한국인귀금속연합회 상임이사), 장수인(보스턴한인합창단 단장), 오명식(앵커리지 한인회 회장), 이이호(몬타나주 한인회 회장), 김채원(팬아시안 커뮤니티 센터 대표), 강철승(북경한국투자기업협의회 부회장), 홍병용(중국 하얼빈 공업대학교 교수), 이진복(재말레이시아 한인회 원로자문위원장), 함종기(바인드레서㈜ 대표이사), 전창숙(전 방콕한인토요학교 교감), 백경숙(연해주 아르센예브市 3번학교 교사), 배성은(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 윤 강(Nado Logistics B.V. 대표이사), 김홍지(전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한희영(재핀란드 한글학교 교장), 김 준(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사무 부총장), 윤재명(골드라인여행사 대표), 임병열(CSA GUATEMALA, S.A. 대표이사), 김길년(전 엘살바도르 경제인협의회 회장), 오타와 양자회(단체), 신숙희(토론토 한인상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헌(전 재향군인회캐나다서부지회 회장), 박종환(재외동포재단 교류지원팀 차장)

10월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거주국 국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한인 차세대는 창조의 주역”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한민족 희망공동체의 비전’ 논의

전 세계 주류사회에서 활동 중인 한인 차세대 리더들의 교류의 장인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창조의 주역, 희망공동체, 세계한인차세대’ 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차세대 포럼, 특별강연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조의 주역인 차세대 리더들의 역할,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 비전과 희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후원하는 멘토 결연식을 맺었다.

10월 4일 '우리 지역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의 차세대 포럼과 리더스 토크에서 한인 차세대 리더들은 "고국 차세대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뛰겠다"고 입을 모았다.

10월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세계한인 차세대대회에서 멘토 결연식 대표로 나선 칸아미나(왼쪽 세번째) 양과 멘토로 나선 송문석 스웨덴 파나고라 패션회사 대표(왼쪽 두번째), 이정진 미국 뉴욕 공립학교 한국학과 학과장(오른쪽)이 무대에 올라 결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비전과 희망을 논의하는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16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창조의 주역, 희망공동체, 세계 한인차세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10월 2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는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 이창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마르쿠스 홀레만 독일 덴츨링엔시 시장, 박지관 뉴질랜드 빅토리아 웰링턴대 학과장 등 20개국 100여 명의 차세대 한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회기간 차세대 포럼, 특별강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인 차세대 리더의 역할과 한민족 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태어난 곳과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며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한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환영만찬을 즐긴 참가자들은 이창래 교수의 '이주,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만남' 이란 주제 강연을 경청했다.

참가자들 다문화 청소년 멘토로 결연

세계 한인 청년 리더들이 모국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꿈을 후원하는 멘토로 나섰다.

이 청년들은 10월 2일부터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5일까지 열린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참가자로, 22개국에서 활약하는 100명의 차세대 리더다.

10월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무궁화홀에서 차세대 리더들은 다문화교류네트워크가 선발한 50명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엽서를 교환하며 각각 2:1 멘토가 되기로 약속 했다.

다문화교류네트워크 자문위원인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결연식 축사에서 "외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이들의 멘토로 나서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어주게 돼 기쁘다"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녀로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아이들은 엽서에 자신의 꿈을 적었고, 차세대들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다짐과 연락처를 적어 서로 교환했다. 교환식에 이어 차세대가 준비한 전통부채를 청소년들에게 선물했다.

엽서 교환식 대표로 나선 칸아미나(11) 양은 "내 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라며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들이라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이 많다"고 기뻐했다.

칸 양의 멘토로 나선 송문석(38 · 남) 스웨덴 파나고라 패션회사 대표는 "11살인데 꿈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만 봐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션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므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싶어하는지 늘 현장에서 고민해온 경험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결연식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조선왕실 금박(金箔) 기술의 명맥을 잇는 김기호 장인의 설명에 맞춰 댕기에 금박을 입히는 체험을 함께했다.

과학자가 꿈이라는 염준홍(11) 군은 "금박 체험을 하며 멘토에게서 겸손과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해외에서 나의 꿈을 후원하는 분이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든든하고 신난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다문화 청소년 멘토 결연식을 마친 후 금박 공예 체험을 하고 있다.

10월 4일 국내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아동 50명과 2:1 멘토 결연식을 마친 차세대 참가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즐거워했다.

차세대 리더들 "고국 청년 해외 진출 돕겠다"

전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한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회에 참가한 차세대 리더들은 10월 4일 '우리 지역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의 차세대 포럼과 리더스 토크에서 "고국 차세대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뛰겠다"고 입을 모았다.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는 홍종욱(29) 씨는 포럼에서 "이민 1세대 부모와 달리 우리는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고 있지만 때때로 소수민족의 한계에 부닥치곤 한다"면서 "그럴수록 더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한 점을 절감했는데, 이런 경험을 고국의 청년들이 독일에 진출할 때 전수해 주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뉴질랜드 빅토리아 웰링턴대학교 학과장인 박지관(44) 씨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준비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용감한 것"이라며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그리고 모국과 거주국 사이의 틈새를 채워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지 한인 차세대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모국은 한반도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며 "나아가 한인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한인 청년들은 폐회식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 환송만찬에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여러분의 열정이 곧 '대한민국의 힘'이 된다"라고 전제한 뒤 "이번 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차세대 네트워크를 앞으로 더 공고히 해 세계 속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3일간 모국을 만나고 경험하며 한민족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이 더 커졌을 것"이라면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 당당히 활약해 달라"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예방한 뒤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으로 자리를 옮겨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코리안 페스티벌' 관람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정총리 "차세대 리더는 한민족의 미래 보배"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월 5일 "세대교체에 따라 동포사회에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1.5세와 2세 이상 차세대 지도자들은 글로벌 마인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차 모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들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 격려와 함께 동포사회와 모국의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동포사회의 발전이 바로 모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뒷받침한다"며 "우리 정부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발급 추진, 방문취업제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창

“재외동포 모두는 모국과의 연결고리 원해”
이창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재외동포는 몸은 외국에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창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이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혈육이 있는 모국과 완전히 분리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작가로 활동하며 ‘영원한 이방인’, ‘제스처 라이프’, ‘가족’, ‘생존자’ 등의 작품으로 헤밍웨이문학상을 비롯해 6개 문학상을 받은 그는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인물이다.

이 교수는 이 대회에 대해 “우리가 꿈을 공유하고, 우리 자신과 꼭 닮은 사람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류 바람 부는 칼미크 공화국에 투자하세요”
전막심 러시아은행 정보보완 책임자

“러시아 남서부에 카자흐스탄과 맞닿아 있는 칼미크 공화국을 아시나요? 한류 바람 부는 우리나라에 투자 진출하세요.”

카스피 해 북서쪽과 볼가 강 하류 서쪽에 있는 동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불교가 국교인 농업국가 칼미크. 수도 엘리스타에 사는 고려인 4세 전막심(40) 씨가 ‘국가 홍보 전도사’를 자처했다.

“현대적이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알고 있지요. 삼성 · 현대 · LG 등 대기업들이 밑바탕을 깔고 그 위에 K-팝 등 ‘한류’가 한국을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국을 와 보지 않아 아주 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답니다.”

한국 영사관이 없어 비자를 내려고 1천km 떨어진 모스크바까지 갔다 왔다는 전 씨는 한국 정부가 칼미크의 거리를 좁혀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한독 교류 이끄는 ‘파독간호사 아들’
마르쿠스 홀레만 독일 덴츨링엔 시장

마르쿠스 홀레만(41)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덴츨링엔 시장은 파독간호사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이혼한 탓에 어머니와의 기억도 만남도 없었지만 1998년 직장 문제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자 뒤셀도르프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모르는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할 수는 없으니 어머니와 만나기 전까지는 어머니나 한국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만난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죠.”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홀레만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포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고 내 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 리더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맨손으로 주류사회에서 성공
박지관 뉴질랜드 빅토리아 웰링턴대 교수

“많은 이민 1세대들이 남의 나라라고 주눅이 들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당장 실패에 실망하지 말고 길게 보며 노력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2013 세계 한인 차세대대회 참석차 방한한 박지관(44) 뉴질랜드 빅토리아 웰링턴대 정보경영학과 학과장은 1996년 27세의 나이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뉴질랜드에 이민해 17년 만에 학과장이자 웰링턴 지역 유일의 한인 치안판사, 뉴질랜드 한글학교 재단 이사장이 됐다.

그의 직책 대부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지원해 따낸 것이다. 5년 넘게 활동 중인 치안판사 직도 직접 구의원을 찾아가는 등 발로 뛰고 필기시험과 인터뷰를 거쳐 임명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 학과장 자리도 원래는 파트타임 직이던 것을 학교에 건의해 풀타임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그의 목표는 1.5 · 2세와 뉴질랜드 주류사회, 한국과 뉴질랜드를 잇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창

광주 세계한상대회 10월 29일 팡파르

세계 40여 개국서 3천명 참가… '한상 네트워크' 결집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광주세계한상대회는 한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한상대회는 720만 명의 재외동포를 한민족 경제자산으로 결집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내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의 장이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동포 비즈니스의 장'으로, 올해 대회는 10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0여 개국 약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상 바이어 초청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한상대회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이끌자는 취지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인 '창조경제'와 그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동포의 저력을 발휘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과 광주광역시는 호남지역 최초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된 우수 중소기업의 대회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상들은 바이어이면서 동시에 컨설팅 역할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역량을 키워온 영비즈니스리더 회원이 500여명으로 늘어나 올해 대회는 어느때보다 젊은 한상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할 예정이다. 회원간의 비즈니스 설명회 뿐만 아니라 대회 전후로 해외에서 지역별 네트워킹 행사도 열린다.

성공 한상의 'CEO 멘토링' 주목

매년 대회기간에 식품외식, 첨단 IT, 섬유패션,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로 세분화한 업종별 세미나와 컨설팅은 해외진출 및 업종 다각화 등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업, 자동차, 백색가전, 그린에너지, 문화산업과 청정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광주 지역의 특색을 부각시키는 대회로 준비하고 있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대회는 대회 참가자와 광주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우선, 재외동포의 해외 개척활동 등을 담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이민사) 사진전'을 개최해 한상과 일반 시민과의 유대감을 높일 예정이고, 광주시는 대회장 내에 남도민요, 대중음악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갈라쇼'를 진행해 '예향의 도시'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한상대회 기간에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열려, 김치 특별전시관 등 신토불이 음식에 대한 다양한 맛도 맛보게 될 예정이다.

창조경제를 내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한상 CEO 멘토링' 프로그램이 기업인과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공한 한상과 광주시 기업인 간의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시장개척에 앞장서온 한상의 귀중한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섬유패션 분야에서는 '패션쇼'를 비롯해 'K-Fashion'의 세계화 전략을 이미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창

“융합과 복합이 창조경제의 시작 한민족 네트워크로 꽃피웁시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과학의 발달은 산업체계를 개편시켰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말한다.

과거 지식과 정보는 소수 엘리트 계층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은 ‘웹2.0 시대’를 열었고 정보의 편중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즉, 모든 이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IT와의 컨버전스를 통해 산업 간의 융·복합을 가속화시켰고 이제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양성 속에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더라도 국가나 기업의 모든 정책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조직이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인간의 수직·수평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공고히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가 1일 생활권에 들어선지 오래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민족 간의 이동과 문물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민족마다 해외교포의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민족네트워크는 화상(華商)이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민 행렬이 줄을 이었다. 170여 년의 이민사 속에 현재 3천여만 명의 화교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화교자본은 2011년 현재 3조4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동남아 각국 경제의 50~90%까지 장악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다.

한국의 해외 이민은 올해로 111년을 맞았다. 그 동안 동포사회는 더더욱 커져 현재 176개 국가, 720만 명의 해외동포가 활동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아직까지 화상의 크기에 비견될 수는 없지만 한인 사회도 그 동안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지금도 젊은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한상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슬기로움과 근면성실함을 바탕으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현지 주류사회에 동화하고 뿌리내리며 경제력을 키워 나갔다. 키운 경제력으로 모국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모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한상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상대회는 그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상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이슈를 토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상들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해 해마다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경제 올림픽’인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창조경제에 세계 각지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상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세계한상대회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이고, 신·구, 내·외간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미래는 상호 보완 속에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한다. 하나의 산업이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서로의 활동 분야는 다르다. 그러나 저마다의 잠재력은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유형의 자산을 통해 한껏 꽃피워질 것이다.

이번 한상의 조국 방문은 국내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속에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창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이 9월 8일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악기와 춤과 노래로 가을을 수놓으며 대화합의 축제를 펼쳤다.

조선족 대화합 한마당 춤과 노래로 가을을 수놓다

제3회 재한조선족연합회 가을맞이 문화공연 '성황'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이 9월 8일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악기와 춤과 노래로 가을을 수놓으며 대화합의 축제를 펼쳤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재한조선족연합회(회장 유봉순) 주최 '가을맞이 문화공연' 은 조선족 동포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잔치.

한 · 중 수교 61주년과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성립 61주년을 기념하는 뜻도 함께 담은 이날 행사에는 국내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과 일반인을 포함해 약 1천2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재한조선족연합회 유봉순 회장은 "이날 무대에 오른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과 연합회 소속 남녀 회원"이라면서 "전문 예술인도 출연료 없이 공연을 펼쳤고 우리 회원들은 힘들고 바쁜 생활 중에도 지난 5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연합회 강당에 모여 춤과 노래와 무용을 연습했다"고 소개했다.

유 회장은 개막 인사말에서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전제한 뒤 "가을맞이 공연을 통해 조선족 동포들이 모국에서 발전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한

민족 간의 대융합을 이뤄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조선족 동포들의 소망인 '자유 왕래' '자유 취업'의 꿈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털어놓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축사에 나섰고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재한조선족연합회 17명의 여성 회원들의 '부채춤' 공연을 시작으로, 옌볜예술대를 졸업한 중국 국가2급 연주가인 김계옥의 가야금 독주, 여성 3인창 '의좋은 3동서', 중국 민족악기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최민의 퉁소 독주, 중국 전통악기 명인 윤용철의 얼후(二胡) 독주, 남성 회원 8명이 펼치는 북타령, 물동이춤 등 총 17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객석의 관객들은 전문 예술인들의 공연에는 감탄의 환호를 아끼지 않았고, 아마추어 회원들의 무대에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신명을 참지 못한 일부 관객은 무대 앞으로 나와 흥겨운 노랫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재한조선족연합회 합창단 60명의 '붉은 백합꽃 곱게 피었네' 열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휴일을 맞아 공연장을 찾은 오정숙(58) 재한조선족교사협회장은 "공연장을 찾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며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와 춤에 잠시 타향살이의 시름을 잊고 고향 생각에 빠져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노영(78) 김포사할린동포회 회장은 "한민족의 전통과 중국 문화를 잘 융합, 계승해 온 점이 놀랍다"며 "오늘은 12명의 회원과 같이 왔는데 내년에는 이 문화공연을 더 많이 알려 여러 귀국 동포와 함께 공연장을 찾을 생각"이라고 털어놓았다.

공연이 끝난 뒤 동아시아 인권 및 평화운동가로 중국과 한국의 조선족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서승 일본 리쓰메이칸대 특임교수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공연에 앞서 박 시장은 축사에 나서 "서울 거주 40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22만 명을 차지할 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근로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고생하며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글로벌센터'를 만들어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문 의원은 "한 · 중 수교 21년이 되면서 양국 관계는 경제 · 문화 교류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취업과 유학으로 고국을 찾은 조선족 동포를 우리 사회가 정말 따뜻하게 품었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면서 "이번 공연이 재외동포를 한민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축사에서 최근 중국 옌지(延吉)를 방문한 소감을 이야기하며 "옌지 시정부 관계자로부터 자신들의 부모가 한국 가서 고생하고 차별받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면 과거의 앙금을 말끔히 씻을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도 축사에서 "서울에서 북한으로 가려면 그 출발점이 은평구 수색역"이라며 "1회 때부터 은평구에서 조선족 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2000년 설립된 재한조선족연합회는 국내 조선족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800명이다. 창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재한조선족연합회 가을맞이 문화공연에서 출연자들이 부채춤을 추고 있다.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이 가을맞이 문화공연에 앞서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사할린 동포를 포함한 일반인 1천200명이 관람했다.

‘라틴 한류’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

12개국 182개 팀 500여 명 참가… 참가자 매년 늘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월 1일 제4회 중남미 케이팝(K-Pop) 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대회가 열린 공연장에는 한류팬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10년부터 국제행사 규모로 해마다 열리는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는 중남미 각국의 케이팝 애호가들에게 가장 인지도 높은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케이팝(K-Pop)을 앞세운 한류가 중남미 지역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9월 1일 중남미 한국문화원(원장 이종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화의 거리 코리엔테스에 있는 복합공연장 파세오 라 플라사(Paseo la Plaza)에서 전날 제4회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언론 집중 소개… 각국 외교관들도 큰 관심

공연장에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한류 팬클럽 회원들과 각국 외교관, 한인 동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중남미 케이팝 명예홍보대사’ 자격으로 2012년 미스 아르헨티나 진 카밀라 솔로르사노(24)가 참석, 케이팝과의 인연을 소개해 대회장의 열기를 더했다. 또 최근 리메이크된 창작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의 공동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아르헨티나 출신 브로드웨이 뮤지컬 연출가 구스타보 사학도 자리를 함께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에 걸쳐 계속된 대회에는 7개국 13개 팀 2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1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미모에 가창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은 아르헨티나의 빅토리아 카페라타(19세) 양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푸에르토리코의 오마르 카반(25) 군이 받았다. 심사위원들의 즉석 제안으로 칠레와 브라질 참가자에게 아차상이 돌아갔다.

우승을 차지한 빅토리아 양은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K-POP 월드 페스티벌’에 중남미 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우진영)과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한병길)이 주최하고 중남미 한국문화원이 주관했다. 삼성전자 아르헨티나 법인(법인장 진문구)이 후원 기업으로 나섰다.

예선에는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푸에르토리코 등 모두 12개국 182개 팀 5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예선과 비교해 참가 팀이 151개에서 182개로 20% 이상 늘어나 중남미에서 케이팝의 인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아르헨티나 언론과 주요 외신도 대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아르헨티나 민영 TV 방송 카날 트레세(Canal 13)와 클라린(Clarin), 파히나 도세(Pagina 12), 티엠포 아르헨티노(Tiempo Argentino) 등 신문, 로이터TV 등이 대회를 소개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La Nacion)은 '라틴에서의 케이팝'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회 이모저모를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원장은 "2010년부터 국제행사 규모로 해마다 열리는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는 중남미 각국의 케이팝 애호가들에게 가장 인지도 높은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4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13년 미스 아르헨티나 선발대회에서 '한류의 아이콘' 케이팝(K-Pop)이 화려한 축하 공연을 펼쳤다.

미스 아르헨티나 선발대회서 케이팝 '인기'

중남미 지역에서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는 '한류의 아이콘' 케이팝(K-Pop)이 현지 미인 선발대회 무대에도 올랐다.

9월 15일 중남미 한국문화원(원장 이종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팔레르모 지역의 라 루랄(La Rural) 컨벤션센터에서 전날 열린 2013년 미스 아르헨티나 선발대회가 화려한 케이팝 축하 공연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0년 제1회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비코(19세) 양이 무대에 올라 유창한 한국어 발음과 파워풀한 댄스로 한류 아이돌 스타의 노래를 열창해 관객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이번 케이팝 공연은 선발대회 하루 전 문화원이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한류와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하는 '더욱 가까운 한국' (Corea Mas Cerca) 프로그램에 참가한 미스 아르헨티나 후보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 각 지역을 대표해 선발대회에 참가한 미녀들은 한류와 한국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EXO, 씨스타 등 아이돌 스타들의 뮤직 비디오를 보며 케이팝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케이팝의 매력에 반한 미녀들은 "아이돌 스타의 초청이 어려우면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 참가자의 공연이라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화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연이 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한병길)은 케이팝 축하 공연을 계기로 2013년 미스 아르헨티나 진으로 선발된 브렌다 곤살레스(21)양을 '중남미 케이팝 명예홍보대사' 로 위촉할 예정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산타페 주 출신인 곤살레스 양은 앞으로 케이팝 관련 행사에 참석, 한류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운영되는 '더욱 가까운 한국' 은 한류의 현지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모두 7회에 걸쳐 500여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이 참가했다.

문화원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매월 2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류 팬클럽 회원들은 물론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참가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월 5일에는 국내 최정상의 퓨전국악 걸그룹 '미지' (MIJI)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메트로폴리탄 극장 무대에 올랐다. 공연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젊은 음악가 양성을 위한 기부'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졌다.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한병길)과 한류 팬클럽인 '한류 친구' 회원들은 케이팝(K-Pop) 스타들의 사진과 음반, 한국 토종 캐릭터 '뽀로로' 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소외계층 자녀로 구성된 '차스코무스 오케스트라 학교' 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차스코무스 시에 있는 '차스코무스 오케스트라 학교' 는 음악을 통해 범죄와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꿈과 희망을 전달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유소년 대상 음악 학교다. 창

김재순 연합뉴스 상파울루 특파원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20여 개 대학서 2학기 특강

재외동포재단은 2학기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강원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1학기에는 재단 임원들이 전국 16개 대학을 직접 방문해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강은 강원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진행되며, 재단 전현직 임직원(팀장급 이상)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및 재외동포사회 현황, 재외동포재단 소개 및 역할,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재외동포의 미래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재단은 인하대, 전남대와 협력해 각 8회, 4회의 특강을 시행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및 재단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단은 현재 공주대, 연세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강의일정을 협의 중에 있어 권역별 주요 대학들이 재외동포 이해교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규형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그리고 재단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수상작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수상작 총 7편을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없으며 우수논문 5편과 장려상 2편이 선정됐다.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예심(7월 29일~8월 20일) 및 본심(9월 2일)을 통해 '학문적 완성도', '정부정책 및 재단 사업과의 연계성', '논문 주제의 시의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논문들이 나왔다"며 "재외동포 연구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정책 관련 논문이나 외국어논문이 더욱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어논문상, 특별상 등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전문가 발굴과 재외동포 조사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 학위논문상'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논문 공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석 · 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10일까지 총 23편(박사논문 12편, 석사논문 11편)의 국내외 학위논문을 접수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우수논문상 박사 각 200만 원, 석사 각 150만 원, 장려상 각 100만 원)이 수여되고, 재단은 학술회의 등을 통해 입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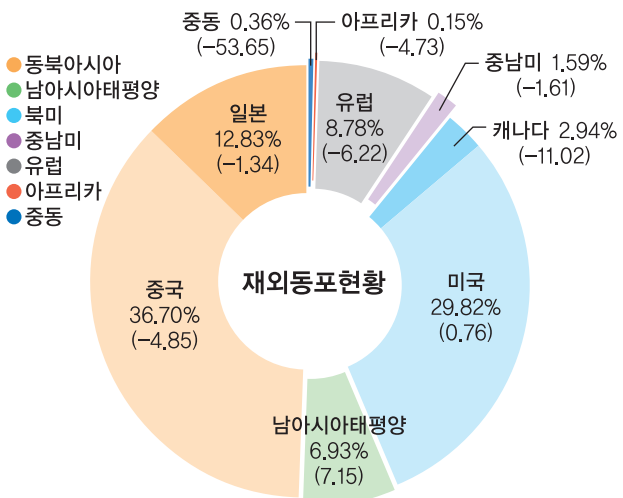
우수논문상: 김명지(한국)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의의와 정체성 연구(전남대 2013, 박사), **오인혜**(미국)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 양식(서울대, 2013, 박사), **황선익**(한국) 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 한인 귀화정책(서울대, 2012, 박사), **박춘설**(한국) 중국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서울대, 2013, 석사), **이희경**(한국)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획득 논리와 과정에 관한 연구(연세대, 2013, 석사)

장려상: 김봉환(캐나다) Understanding the Integration Experiences of Korean Canadians(Univ. of Manitoba, 2013, 박사), **김희정**(일본) 축제를 통한 재일코리안의 통합적 문화운동에 관한 연구(예원예술대, 2013, 석사)

올 재외동포 701만 명… 2년 전보다 2.2% 줄어

캐나다, 조기 유학 감소로 11%나 감소

외교부는 최근 재외동포 인구가 701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2% 줄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8월 16일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광복절 플래시몹에서 한인들이 아리랑과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 모습.



지난 2011년 '700만 명 시대'에 재진입했던 재외동포 인구가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교부가 발간한 '2013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재외동포 인구는 701만2천492명으로, 지난 2011년 716만7천342명보다 2.1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캐나다 동포가 2011년 23만1천492명에서 20만5천993명으로 11.02%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유럽이 6.22%, 중국이 4.85% 줄었다.

반면 중동 거주 동포 수가 1만6천302명에서 2만5천48명으로 53.65% 늘고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속한 남아시아태평양 동포가 45만3천420명에서 48만5천836명으로 7.15% 늘었다.

재외동포 인구 수를 지역별로 보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인구가 360만9천800명(49.4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229만7천425명), 유럽(61만5천847명), 남아시아태평양(48만6천836명)이 뒤를 이었다.

거주국별로는 중국(257만3천928명), 미국(209만1천432명), 일본(89만2천704명) 순이었다.

재외동포 가운데 440만1천816명(62.77%)은 거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은 각각 112만2천161명, 119만1천758명, 29만6천757명으로 전체의 37.23%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서 미국 동포가 10만 명가량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조사된 부분 등 오류를 시정했다"면서 "러시아가 2002년 이후 8년 만인 2010년 실시한 인구조사를 반영했는데 고려인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동포가 급감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인구조사 발표와 밴쿠버 지역의 조기 유학 가족 감소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중동의 경우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출입국을 통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건설현장 노동자를 통계에 포함하면서 동포 수가 늘었다는 것이 외교부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2년마다 재외공관이 작성한 공관별 재외동포 현황을 취합·정리하고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 인구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연도별로 1971년 70만 명대이던 재외동포 인구는 76년과 86년에 각각 100만 명과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07년(704만4천716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682만2천606명) 한때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1년 다시 700만 명을 돌파했다. 창

朴대통령, APEC 정상회의 큰 성과 아세안서도 '세일즈 외교' 돋보여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6일 오후 발리 BICC에서 열린 'CEO 서밋 세션 6'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8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 간의 업무오찬을 끝으로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APEC 무난한 데뷔… 한중 대북공조 과시

대통령이 정상회의 첫날인 7일 세션1에서 선두발언을 통해 주창한 다자무역 체제 강화의 중요성, 12월 열리는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실질적 성과 도출 촉구,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연장, 기존 보호무역 조치 철회 등은 APEC 정상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 중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정상과의 4차례 양자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산업 협력, 우리 기업들의 해당국 진출 애로사항 해결 등 경제분야 성과를 낸 것도 의미가 크다.

특히 APEC이 당면한 직접적 현안은 아니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있어 종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확인한 것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북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분명한 발언을 끌어낸 것은 '북핵 불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북문제에 있어 한중이 대체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APEC 정상회의 둘째날인 8일에도 박 대통령은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과의 대화, 정상회의 세션2, 업무오찬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APEC 내 민간인프라 투자 촉진 방향을 지지하고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펼쳤다.

아세안 다자무대서 세일즈 외교 주력

APEC 무대에서 '무난한 데뷔'를 한 박 대통령은 9~10일 한 ·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국 · 중국 · 일본)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3개의 다자무대에 나섰다.

이곳에서의 행보도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세안이 우리의 제2위 교역시장이자 제1위 투자대상지이며 제2위의 건설수주시장으로 핵심 경제 파트너인만큼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확대 강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정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사업 참여 확대, 자원 ·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 안보, 사회 · 인문 분야에서도 아세안과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 외교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접촉하며 신뢰를 구축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새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창

우리말 배워 봅시다!

뱉아라 / 뱉어라

모 신문사에 연재되던 칼럼 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가 있었다. 이 칼럼의 제목을 보고 '뱉어라' 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뱉아라' 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있었다.

한글 맞춤법을 보면,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ㅗ' 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는 어미를 '~아' 계열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ㅓ' 계열로 적도록 돼 있다.

'뱉다' 는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 나 'ㅗ' 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뱉어라' 라고 쓰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른 모음의 경우는 별로 의문이 생기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ㅐ' 일 때는 '~아' 를 써야 할지 아니면 '~어' 를 써야 할지 혼동이 생기는 것 같다. 아마도 'ㅐ' 가 비교적 밝은 음색이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ㅏ' 소리와 같은 양성모음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리해보면,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ㅗ' 인 경우에만 어미를 '~아' 계열로 적는다.

한 벌 / 한 죽

요즈음은 방송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 방송사에서 앞다퉈 가며 홈쇼핑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 상품 중에서도 특히 옷에 대한 상품 설명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예를 들면 셔츠 석 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팔거나, 바지 두 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팔 때, 이것을 '셔츠 세 벌' 그리고 '바지 두 벌' 등으로 설명할 때가 많다. 그러나 '벌' 이라는 말은 옷이나 그릇 같은 것이 짝을 이루거나,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서 갖추어진 한 덩이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다.

그래서 양복 바지와 윗도리로 짝을 이루는 것을 '양복 한 벌' 이라고 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해서 '수저 한 벌' 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셔츠 세 벌' 이나 '바지 두 벌' 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셔츠 석 장' 또는 '셔츠 석 점' , 그리고 '바지 두 장' 또는 '바지 두 점' 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물건을 세는 단위에 '죽' 이라는 것은 옷이나 그릇 등의 열 벌을 한 단위로 말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버선이 생활 필수품이어서 그랬는지 '신행에 버선 한 죽을 해갔다.' 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추호도 없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고 할 때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쓴 '추호' 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추호' 는 '가을 추(秋)' 자에 '가는 털 호(毫)' 자를 쓰는 데, 이 말은 본래 가을 짐승이 털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을이 되면 짐승의 털이 매우 가늘어지는데, '추호도 없다' 는 말은 가늘어진 터럭 하나조차도 없을 정도라는 뜻이니, 아주 없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추호도 없다' 는 말은 아주 적거나 거의 없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된 것이다.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추호의 거짓 없이 증언했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추호' 라는 말은 대개 '추호도' 또는 '추호의 ㅇㅇ' 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이 말 뒤에는 부정하는 표현이 뒤따라오게 된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털끝' 이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추호' 와 '털끝' 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출판 '바른말 고운말' 〉

서라벌의 미소가 어린 경주

경주는 신라(新羅)를 추억한다. 신라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다. 신라가 사라진 지 1천여 년이 넘었지만 경주는 여전히 세계를 조망하고 덕을 고양한다.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3'과 '경주 최부잣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 예다.

한국인은 경주를 추억한다. 풋풋한 웃음과 꿈으로 가득했던 학창 시절 수학여행 행선지 가운데 앞자리는 언제나 경주였다.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경주는 아무 때나 찾아가도 두 팔 벌려 반겨줄 것만 같다.

경주는 언제부터 베스트셀러 수학여행지였을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주 곳곳을 발굴해 역사 유적지로 회자되면서 수학여행지로 자리매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년 고도' 경주는 배움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여행지였다.

한국의 10대들은 경주에서 역사 공부만 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유행가를 부르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았다. 일부는 선생님 몰래 술판도 벌였다. 교복 입은 까까머리, 단발머리 아이들에게 경주는 해방감을 안겨주는 너그러운 도시였다.

경주에선 누구나 고고학자,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전문 지식이나 심미안이 없어도 무방하다. 마주하는 풍경들이 천 년 전으로 여행자를 이끈다. 신라인의 미의식이 깃든 유적과 유물들이 예술적 상상력과 안목을 고취시킨다.

작은 동산만 한 신라시대 무덤들은 경주 관광의 길라잡이로 삼을 만하다. 경주에는 내물왕릉이나 무열왕릉처럼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왕릉과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처럼 주인을 알 수 없는 왕릉급 무덤(총, 塚)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전성기 서라벌(경주의 옛 이름)에는 17만8천936호가 있었다고 하니 현존하는 무덤의 수는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8~9세기 서라벌은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모든 가옥을 기와로 지어 초가는 한 채도 없었다고 한다.

두 가지만 알고 떠나면 신라 무덤 여행이 더 풍요로운 여정이 될 듯싶다. 경주에 거대한 무덤들이 운집한 까닭은 무엇일까? 신라 무덤에서 나온 금관은 모두 몇 개일까?

무덤은 많은 사실을 말해 준다. 기록으로 전하는 신라 천년 역사의 실재는 무덤 발굴을 통해 입증되고 구체화됐다. 3세기 무렵 무덤에선 철제 무기와 덩이쇠가 많이 발견됐다. 신라가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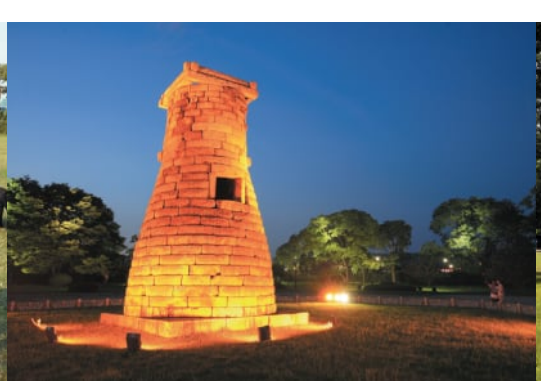
신라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보면 신라 왕은 금관을 쓰고 허리에 금띠를 맸다. 또 용과 봉황이 장식된 큰 칼을 차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다.

금으로 만든 관,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신발 등은 5세기부터 6세기 전반의 왕릉과 왕릉급 무덤에서 집중 출토됐다. 금관만 6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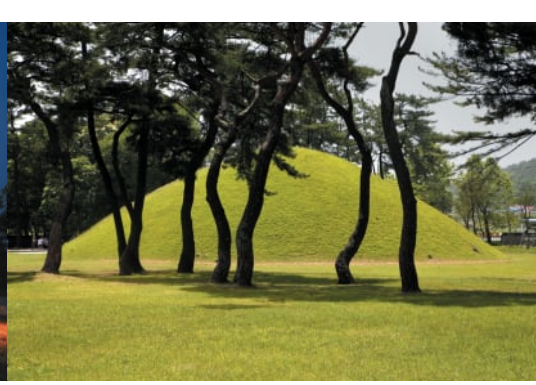
TV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신라 왕, 여왕의 금관은 천마총 출토품을 모델로 한다. 1973년 발굴된 금관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고 화려하다.

신라 왕이 평소 금제 장식품을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착용

1



2



3

불국사 경내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불리는 3층 석탑, 자하문으로 오르는 청운 · 백운교, 극락전으로 오르는 연화 · 칠보교가 국보로 지정, 보존되어 있다.

하기엔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행사 때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은 해체 ·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안전 전검 때 석탑 북동측 기단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지금 불국사를 방문하면 해체돼 땅으로 내려온 1~3층 옥개석(지붕돌)과 탑신석(몸돌)을 볼 수 있다. 경덕왕 10년(751) 백제 출신의 석공 아사달이 돌을 깎아 삼층석탑을 세울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꾸밈없이 간결하고 장중한 삼층석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창

4

5

1 최근 중 · 장년층이 30~40년 전 교복을 입고 경북 경주로 추억의 수학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2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으며,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3 경주는 신라 왕릉의 보고다. 신라 제29대 무열왕(재위 654~661)의 무덤으로 경주 시가지 서쪽의 선도산 동쪽 구릉에 있는 5기의 큰 무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다.

4 경주시는 '경주 최부잣집'으로 널리 알려진 교촌마을을 전통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한옥마을로 새 단장해 운영하고 있다.

5 황남빵은 1930년대 경주 토박이 고(故) 최영화 씨가 개발했다. 팥으로 떡과 빵을 만들어 먹던 집안 음식을 상품화해 큰 성공을 거뒀다. 고유한 맛과 문양(국화)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주빵은 황남빵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모양이 비슷하지만 맛은 다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월간 〈재외동포의 창〉에 동포사회의 생생한 현지 소식을 싣고자 합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 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는 마감 기한 없이 월간 단위로 묶어서 소개를 할 예정이니 그때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 보낼 곳(원고 A4 한 장 이내) :

wakaru@yna.co.kr / shaorong@okf.or.kr

재외동포재단 STUDY KOREAN

2013 새로워진
스터디코리안 http://study.korean.net

스터디코리안은 엄선된 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 한국문화,
커뮤니티, 교사자료실, 교육정보, 학습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관리기능 강화

체계적 학습관리
기수별 관리
어권별 접속

실질적 학습관리
학습진도관리 및 평가
학습현황 및 통계

쌍방향 학습관리
온라인 튜터의 과제관리 및 질의응답

커뮤니티 활성화

한글학교 네트워크
한글학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교류 활성화

오늘의 일상
200자로 회원 간의 일상을 나누는 소통의 창

초청연수 카페
초청연수 참가자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간

수업지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멀티미디어 자료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단어카드, 그림카드 제공

개인자료관리
스크랩 기능을 통해 개인 수업자료 수집

학습교안 제공
스터디코리안 학습콘텐츠를 오프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우수 콘텐츠 제휴

EBS 콘텐츠 제휴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및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콘텐츠 제휴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 제공
올바른 동북아 역사관 확립을 위해 동북아 7대 역사현안 학습콘텐츠 및 다국어(한 · 중 · 일 · 영) 영상 제공

스터디코리안 주요 서비스

한국문화
한국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

커뮤니티
전 세계 한국학교를 연결하는 한글학교 네트워크

창작동요
한글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든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창작동요

교사자료실
다양한 수업자료, 교사지도안 제공 및 회원 간 자료공유 공간 제공

2013 신규 콘텐츠 (하반기 서비스)

한글학교 교사연수
동화구연, 글쓰기, 독도 알기 등 15개 차시 추가 제공

다시 보는 한국문화역사
EBS가 추천하는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하는 5,000년 한국 역사 다시 보기

스터디코리안 한글교실
스터디코리안의 새로운 캐릭터 코코리안과 함께 하는 즐거운 유아 한글교실

북미 이주사
북미 이주역사를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부가 서비스

고객센터
학습가이드 및 학습지원

모바일
2012 스마트앱어워드 우수상 수상

전자도서관
한국어 전자도서 23,508권 서비스

뉴스레터
찾아가는 스터디코리안 뉴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세계한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www.korean.net